

2012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 과목1(국어), 과목2(영어), 과목3(한국사)

문형 : A형

과목4(자료조직개론), 과목5(정보봉사개론)

직렬(사서)

응시번호()

성명()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카드 답안지에 바르게 표기하시오.

1. 다음 중, 둘 다 표준어인 것은?

- ① 무 - 무우 ② 돌 - 뚝 ③ 사글세 - 삭월세
④ 노을 - 놀 ⑤ 강낭콩 - 강남콩

2. 속담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동함.
② 빛 좋은 개살구 - 겉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음.
③ 죽은 자식 나이 세기 - 이왕 잘못된 일을 자꾸 생각해도 소용없다는 말.
④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 - 그다지 좋지는 않으나 당장은 좋으니 취할 만함.
⑤ 제 눈에 물 대기 - 자기 이익만 생각함.

3.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는?

- ① 머리말 ② 뒷꿈치 ③ 설거지
④ 덮이다 ⑤ 짜깁기

4. 어법에 어긋난 이유가 다른 하나는?

- ①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②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③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④ 나는 오늘 저녁 6시에 역전 앞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⑤ 나이가 어린 연소자는 출입을 통제한다.

5. 발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넓다 [넙따] ② 늙고 [늘꼬]
③ 묻히다 [무치다] ④ 값을 [갑쓸]
⑤ 신라 [실라]

6. 다음 글의 밑줄 친 ㉠ : ㉡의 의미 관계와 같은 것은?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 ① 계승(繼承) : 단절(斷絶)
② 숙환(宿患) : 지병(持病)
③ 일치(一致) : 부합(符合)
④ 예술(藝術) : 문학(文學)
⑤ 가명(假名) : 실명(實名)

7. 다음 <보기>의 맞춤법 규정을 참고할 때,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보기>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① 부장 겸 차장 ② 한잎 두잎 ③ 이말 저말
④ 하루 내지 이틀 ⑤ 이사장및 이사들

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漢字成語)는?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팔십 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킁킁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 본 일이 없다.

- ① 삼순구식(三旬九食) ② 무위도식(無爲徒食)
③ 비몽사몽(非夢似夢) ④ 역지사지(易地思之)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9. 다음 문장의 짜임새에 대한 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그는 마음이 넓다. - 인용절을 안은 문장
- ② 나는 학생이 아니다. - 서술절을 안은 문장
- ③ 눈이 소리도 없이 내린다. - 부사절을 안은 문장
- ④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홀문장
- ⑤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럽다.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10.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늦더위 ② 손바닥 ③ 돌다리
- ④ 부슬비 ⑤ 지우개

(11~1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⑦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哀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哀)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 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11. (가)시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만을 주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했던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② 이 시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작품이야.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지금과 같은 젊고 순수한 마음을 결코 잃지 말라는 거야.

③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작가는 자신의 인생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④ 이 시를 쓴 사람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직업이 그런 쪽일 거야.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말이야.

⑤ 참 멋있다. 별은 천상 세계에 속하고, 바람은 지상 세계에 있는 것인데, 끝에 가서 별이 바람에 스치는 것을 보니 이야말로 두 세계가 만나는 경지 아니겠어?

12. 밑줄 친 ㉠의 시적 의미가 형상화된 시행을 (나) 시에서 찾는다면?

- ① 아예 애련(哀憐)에 물들지 않고
- ②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 ③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 ④ 흐르는 구름 / 머언 원뢰(遠雷)
- ⑤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13. 다음 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잘못 말한 것은?

(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나)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먼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 ① (가)의 ‘달빛’은 외로움과 상통한다.
- ② (가)보다는 (나)의 시구가 비유적이다.
- ③ (나)에는 역설적 표현과 직유(直喩)가 드러나 있다.
- ④ (가)는 시각적 심상으로 외로움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나)에는 청각과 시각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난 공감각적 표현이 있다.

14. 다음 시조가 예찬(禮讚)하고 있는 대상은?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ㄱ마니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 ① 학 ② 매화 ③ 국화
- ④ 소나무 ⑤ 대나무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kak’, 첫 ‘k’은 높고 둘째 ‘k’은 낮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마다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중략>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귀엽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라 어린아이의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 그것은 기발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5. 위 글의 글쓴이가 밑줄 친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치에 맞지 않는 상상이기 때문
- ② 인간과 친근한 까치의 모습 때문
- ③ 까치가 자연과 교감을 하기 때문
- ④ 까치가 인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
- ⑤ 민화는 사실적 풍경만을 다루기 때문

16. 위 글의 글쓴이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과 관련된 작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간밤에 우던 여흘 슬피 우러 지내여다.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우러 보내도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저 나도 우러 네리라.

- ② 구름이 무심(無心)튼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켜 이셔 임의(任意)로 돈니면서
구터야 광명(光明)흔 날빛을 짜라가며 덤늬니.
- ③ 십 년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허더면 가랴마는 제 구터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허노라.
- ⑤ 춘산(春山)에 눈 노긴 바름 건듯 불고 간 되 업다.
저근덧 비러다가 마리 우희 불리고저.
귀 밋터 희묵은 서리를 녹여 불가 허노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남산 밑에다 장충단을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춤만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전기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민족의 삶과 한을 표현한 문학이다.
- ② 3음보 율격의 민요로 후렴구가 발달하였다.
- ③ 평이한 일상어를 사용하여 민중의 현실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민요 형식을 빌려 당대 현실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7마당 양반선비마당-

초랭이 양반요, 양반요, 얼른 나오소.

곳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은 여덟 팔 자 황새걸음으로 ‘등장춤’을 추며 등장한다. 초랭이는 연신 바쁘게 쫓아다니며 부산을 댄다. 양반과 선비가 무대 중앙에 위치하면 초랭이가 뛰어나온다.

초랭이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예, 그러시더.

초랭이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 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해해…… 니 왔니껴?

양반 예끼, 이놈.

선비 저놈의 초랭이가 버릇이 없구먼요.

양반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걸 별도리가 있나.

선비 아니, 그래 가지고 이마에 대쪽 같은 걸 쓰고 양반이라카나?

초랭이 지도 인사, 나도 인사, 인사하긴 마찬가진데 무슨 상관이니껴.

양반 어흠, 그래 내가 양반이 아니고 또 머로? 여기에 내보다 더한 양반이 어디 있노.

선비는 부네를 부르고 자리에 앉는다. 양반도 앉는다. 부네는 가만히 선비에게로 가 선비의 어깨를 주무른다. 선비는 부네가 주무르는 손을 어루만지며, 양반이 보란 듯이 다정스레 대한다.

초랭이 양반요, 어깨 주물러 주까요? (초랭이는 부네의 흉내를 내듯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무릎으로 양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양반 아이쿠, 이놈. 어깨 부서질따.

초랭이 (뒤로 나동그라진다. 다시 일어서 양반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치려는 행동을 한다.) 양반요, 양반요, 아 양반 어른요.

양반 허허, 이놈이 오늘 따라 왜 이리 수답노.

초랭이 세사 참, 별꼬라지 다 볼시데이. 아까요, 중놈이 부네하고 요래 요래 춤추다가 중이 부넬 차고 저짜로 갔잖니껴.

양반 허허, 그 참 망측한 세상이로다.

18. 전통가면극이 서양의 연극과 다른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 ② 공연하는 곳이 무대가 된다.
- ③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작품 전체가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과장된 행동과 몸짓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 우리 전통가면극에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 ① 반어적 표현 ② 역설적 표현
- ③ 감각적 표현 ④ 반언어적 표현
- ⑤ 비언어적 표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강촌영감 : 당장 오늘밤에 떠나게!

칠복 : 예?

봉구 : 님시꾼들이 자네를 오늘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여기에 님시질 오지 않겠다는 거여!

강촌영감 : 매정헌 사람이라고 혈지 모르체만, 오늘밤 우리덜 정을 싹둑 싹두질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네.

덕칠 : 팬시리 없어진 고향 싹사랑허지 말어. 고향이고 여편네고 잊어 뿌릴 건 냉큼 잊어 뿌리어야 살기가 쉬워!

칠복 : 봉구, 덕칠이, 나를 내쫓지 말어. 이 보게덜,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영감님! 지사정 좀 봐주시오, 잉!

강촌영감 : 정 안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해서라도 내쫓을 꺼여!

칠복 : ……예?

20. 위 글에 등장하는 ‘칠복’의 처지를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면중복배(面從腹背)하고 있군.
- ②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군.
- ③ 함흥차사(咸興差使)의 처지로군.
- ④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해 있군.
- ⑤ 권모술수(權謀術數)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군.